



수아의 학교 방학을 맞아 빅토리아 호수에 가서 작은 고깃배를 타고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장비라고는 낚시 줄, 낚시 바늘, 미끼인 지렁이 그리고 낚시 줄을 감고 놓치지 않도록 묶는 패트병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낚시라 그런지 물고기를 많이 잡겠다는 희망을 갖고 시작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수아는 현지인 어부의 도움으로 자그마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네요. ^^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선교사의 발걸음



◀ 함께 동역하는 현지 목사님 중에 John Okapet 목사님이 계신데, 현지 목사님 중 참 존경하고 배울 것이 많은 목사님으로 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지난 달 중순 급하게 기도 부탁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수술 하는 중에 뱃속의 아이가 쌍둥이였던 것을 알게 되어 수술 시간이 길어졌고, 그로 인해 산모가 혼수상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니! 어떻게 뱃속의 아이가 쌍둥이인 것을 수술 중에 알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우간다의 의료수준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작년에 산모가 수술을 받던 중 수혈할 피가 모자라서 산모와 아기가 죽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간다임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오카펫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감사하게 사모님은 4시간 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으며, 둘째 아이도 생명을 갖고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그렇게 뱃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둘째 아이는 아들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만큼,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간다의 상황을 보면 정말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내일의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 캠팔라에서 약 4시간 정도 떨어진 마유게(Mayuge) 지역에 있는 한 시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연합철야기도회로 모인 것입니다. 연합 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총기 사고로 인해 3명이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한 일을 포함해 그 지역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며,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선교사로서 이렇게 귀한 모임에 초대 되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모임은 각 교회 찬양팀들이 나와 찬양을 인도하고, 목회자들이 돌아가며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간다 곳곳마다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일을 이렇게 기도로 해결하기 위해 모인 그 사람들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도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이 주어졌는데,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과 함께 하셨듯이,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지난번 기도 부탁 드렸던 자매(조이스)는 수술을 잘 받고, 현재 치료받으며 회복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치유되어서 걷는 것과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주세요.

◀ 이번 4월에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특별히 4월 11일에 나카롱고(Nakalongo)에서 있을 세례식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3월)
- | | | | | |
|--------|-----------------|----------------|--------|---------|
| 서초중앙교회 | 대광교회 | 사랑의교회 | 생명나무교회 | 서울한우리교회 |
| 수색교회 | 시은소교회 | 신도중앙교회 | 신림교회 | 안암교회 |
| 은평교회 | 충주에덴교회 | 철암교회 | 평강교회 | 한마음교회 |
| 참빛선교회 | 권재우 | 김여일 | 신영화 | 유호영 |
| 윤경선 | 윤기철 | 조상규 | 최동일 | 황해연 |
| 무명 1 | 김용열(생명의 삶 Q.T.) | 박은희(Buyunda교회) | 부활절 | 식사대접) |